

# 新羅 觀音說話의 神祕的 體驗 II

— 十一面·千手觀音을 中心으로 —

김 무 조\*

## 목 차

I. 緒 論	1. 十一面觀音信仰의
II. 觀音信仰의 新羅的 應現	靈驗的 示顯
III. 十一面·千手觀音信仰의 新羅的 體驗	2. 千手觀音信仰의 靈驗的 示顯
	IV. 結 論

## I. 緒 論

新羅의 觀音信仰은 洛山寺를 垂地的 本源으로하여 漸次 民衆信仰으로 土着化되면서 應身の 示顯으로 등장한 觀音은 十一面觀音菩薩과 千手觀音菩薩이 主軸이 된다. 이 두 觀音信仰이 新羅 衆生生活에 主流를 이룬 緣由는 觀音示顯의 應現에 있어 三十三應身 가운데 가장 靈驗說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淨土信仰의 普遍的 思想은 來世觀에 그 基底를 두고, 宗教的인 理想追究에 理念을 구하고 있었다. 觀音信仰이 根本的으로 未來世에 대하여 전혀 無關한 것은 아니었지만 阿彌陀淨土信仰이나 彌勒佛淨土信仰에 비해서는 現世主義的 淨土信仰에 傾到되고 있었다.

三國遺事에 所載되어 있는 觀音說話등을 分析하더라도 未來世에 대한 薦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度보다는 現在 地上에 生存하는 人間救援을 위하여 示顯의 應信으로 나타나 는 것이 顯著하다. 栢栗寺 大悲는 狄賊에 잡혀간 國仙 夫禮郎을 救出했고<sup>1)</sup>, 敏藏寺의 觀音은 貧女の 아들 長春을 海中에서 歸還케 했으며<sup>2)</sup>, 信孝居士의 說話에는 觀音이 老婦人으로 示顯하여 居處가 없는 信孝로 하여금 名堂인 慈藏의 옛 結茅를 가르켜 주기도 한다.<sup>3)</sup>

또 觀音의 應現은 修道하는 佛子인 恒恒朴朴과 努昝夫得을 成佛케 하기도 하고,<sup>4)</sup> 盲兒가 된 딸아이의 눈을 開眼케 한 경우도 있다.<sup>5)</sup> 衆生寺 大悲像의 靈驗은 生男하기를 원하는 崔殷誠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 것은 물론 그 아이를 兵亂에서도 끝끝내 生命을 保存케 하여 父子의 相逢을 맞게 해 준다.<sup>6)</sup> 洛山寺의 大悲는 짝을 맺지 못한 調信으로 하여금 良家의 閨秀를 점지케 하여 百年偕老의 佳緣을 맺게도 한다. 이 說話는 現實에서 이루지 못할 인연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이룩되게 한 것이다.

原來 觀音菩薩의 宗教的 精神은 救苦利生이라 群生教化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所依經典 등에 의하면 觀音의 役割은 兩面性を 同時に 保有한다.

- (1) 西方淨土를 맡고 있는 阿彌陀佛의 協侍佛로서의 役割.
- (2) 救苦利生을 맡는 現世菩薩로서의 役割.

(1)의 경우를 主張하는 經典들은 無量壽經 卷下, 大阿彌陀經 卷上, 觀世音菩薩授記經이다. 無量壽經에는 西方世界의 菩薩로는 最尊의 菩薩로서 觀世音과 大勢至가 있다. 이 두 보살은 그 威神의 光明이 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비추는데, 이 國土에서 菩薩行을 열심히 닦아 명이 다하자 轉化하여 西方世界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또 大阿彌陀經에도 역시 安養世界의 最尊의 菩薩로는 觀音(蓋樓亘)과 大勢至(摩訶那鉢)를 꼽는다. 이 두 보살은 언제나 阿彌陀佛과 함께 對坐하여 正論하며 議論한다고 되어 있다.<sup>7)</sup> 觀世音菩薩授記經에도

---

- 1) 三國遺事, 卷 第4, 塔像, 栢栗寺.
- 2) 三國遺事, 卷 第4, 塔像, 敏藏寺.
- 3)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臺山月精寺五類聖衆.
- 4)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南白月二聖 努昝夫得恒恒朴朴.
- 5)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 6)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 7) 清華譯, 淨土三部經, 韓振出版社, 1980.

西方의 安樂世界에는 이 두 보살이 언제나 主菩薩인 阿彌陀佛을 脇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외의 經典中 特異한 것은 觀無量壽經典의 內容인데 이 곳에서는 十六觀中 中の 第十觀에서 觀音菩薩의 眞實色身相好를 詳說하고, 觀音이 極樂에 往生하고자 하는 사람은 命終때 諸聖衆과 더불어 示顯하여 金剛臺, 紫金臺, 金蓮臺 등을 가지고 直接 引導해 간다는 것이다.<sup>8)</sup>

(2)의 경우를 主張하는 經典들은 法華經의 普門品과 楞嚴經의 觀音圓通說을 들 수 있다. 普門品에 있어서는 現世의 娑婆世界의 人間救援에 강한 意志를 表示한다. 觀音菩薩의 名號만 받들면 大水大火의 防止, 夜叉·羅刹의 除去, 求男求女의 選擇自由, 病恙의 治愈 등 실로 人間萬事를 自由로히 保護받을 수 있는 權威를 갖는다. 또 觀音은 十九應身法으로 三十三身으로 現身하여 娑婆世界를 濟度하므로써 大慈大悲의 權化며, 福聚海無量的 淨聖임을 指摘한다.<sup>9)</sup>

또 觀音圓通 自說에 의하면 觀音이 衆生을 위하여 담당하는 두 가지 役割을 說明하고 있다. 첫째는 世間·出世間을 超越하여 十方世界를 圓明하였는데 위로 十方諸佛의 本妙覺心에 契合하여 佛·如來로 더불어 慈力이 同一하여 三十二應身을 나타내어 諸國土에 들어가서 널리 說法을 통해 衆生을 解脫成就케 하며, 둘째는 아래로는 十方의 一切 六道衆生에 契合하여 諸衆生과 더불어 그들의 祈願을 成就시켜준다. 이는 곧 觀音이 十四의 無畏心을 베풀어 衆生을 복되게 하며, 圓通을 얻어 無上의 道를 닦았으므로 無作妙德을 깨달아 衆生을 救護한다는 것이다.<sup>10)</sup>

결과적으로 觀音菩薩의 具體的 用事는 兩面的 性格을 갖는다. 하나는 淨土 經典의 精神에 符合하는 阿彌陀佛의 西方世界를 追究하는 理想的 實現이고, 또 하나는 現世의 人間을 救援하는 救世利生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新羅에 있어서는 理想追究의 極樂 薦度보다는 現世의 新羅 國土와 그 生民들의 保護를 위해서 觀音의 示顯은 절대적인 것이다. 觀音의 示顯은 新羅人에 있어서는 上下貴賤을 묻지않고, 도처에 應身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

8) 十六觀은 觀無量壽經 正宗分の 所說이다. 韋提夫人이 西方極樂世界에 願生하고 아울러 未來世의 往生을 希求하는 人을 위하여 佛世尊에게 그 所修法을 청했는데 그 때 부처는 十六種의 觀門으로 說明했다. 그 열번째가 觀世音想觀이다.

9) 大慈大悲 觀世音菩薩, 大韓佛敎天台宗, 1986.

10)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 首楞嚴經 卷 第6.

중에서도 十一面觀音과 千手觀音의 登場이 가장 顯著하다. 이것은 이 두 觀音의 役割이 新羅人의 傳統的 國土環境과 自然的 性情에 가장 適合했기 때문이다.

新羅의 淨土信仰이 全的으로 新羅 中心의 土着的 信仰體系를 갖추어 新羅 社會와 人間을 위하여 窮究되었다는 사실은 新羅人의 傳統的 自覺이 時代的으로 그만큼 要求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觀音淨土에 있어서는 어떤 淨土信仰보다도 더욱 現世主義라는 것과 人間中心主義라는데 그 特色을 찾을 수 있다.

## II. 觀音信仰의 新羅的 應現

三國遺事에 所載되어 있는 觀音說話의 靈驗을 分析하여 新羅信仰의 獨自的 傳統性과 土着的 特殊性을 고찰하고자 한다.

義湘이 設立한 洛山寺 大悲像의 靈驗은 義湘이나 元曉에 의해서 探索된 바가 있으나<sup>11)</sup> 여기에는 調信居士와의 因緣說을 開陣해 보고자 한다. 世遼寺의 知莊인 調信이 莊上에 와서 그 고을 太守 金昕의 딸을 짝사랑하게 되어 언제나 洛山寺의 大悲前에 ‘그로하여금 아내가 되어 줄 것을’ 祈願한다. 어느날 슬피 울다가 그리운 정에 지쳐 잠간 졸았는데 끝내 金氏孃이 찾아와서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한다.

「내가 일찌기 上人の 鬢을 잘 알아 마음으로 사랑하여 暫時도 잊지 못하였으나 父母에 命에 못 이겨 억지로 다른 사람을 좃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同穴의 짝이 되고자 여기에 왔노라」<sup>12)</sup>

調信이 너무도 반가와 낭자와 함께 향리로 돌아와서 40余年을 偕老하며 子息도 다섯명이나 두었다. 그러나 가난이 尤甚하여 집은 네 벽 뿐 粗食조차 대지 못했다. 마침내 夫婦는 零落하여 자식들을 이끌고 四方으로 다니면서 糊口하게 되었다. 이 때 15才난 큰 아이는 굶어서 죽고, 10才 되는 딸은 밤

11) 金戊祚, 新羅觀音說話의 神祕的 體驗, 龍淵語文論集(4), 1988, pp. 15~39.

12)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얻으러 나갔다가 개한테 물려 상처를 입고 울부짖었다. 부부는 더 사상 가난에서 헤여날 수 없어 각각 두 아이를 데리고 50年の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살길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이 꿈에서 깨어난 調信은 人世의 無常함을 切感하고선 貪染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었다. 調信이 觀音像을 대함이 너무도 부끄러워 懺悔하여 다시 않았다. 그 후 調信은 淨土寺를 세워 옛날에 죽은 큰아이의 무덤에서 彌勒佛을 얻어 절에 安置하고 一念으로 修道하여 西往하였다.

洛山寺 觀音道場은 新羅 觀音의 本源所在地이다. 調新이 世達寺의 莊人으로서 金所의 딸에 마음을 두고 觀音像 앞에서 그 所願을 祈求한 것은 佛子로서는 脫練한 行爲이다. 그러나 洛山寺 大悲는 調信의 간절한 所願을 人間的 側面에서 救援한다. 修道者의 바른 길은 閻閻집 아가씨에게는 마음을 들 수가 없다. 그러나 修道者도 인간이다.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남녀의 사랑을 觀音은 꿈에서라도 이룩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假寢에서 깨어난 調信은 人間의 本然의 姿勢로 돌아온다. 한 때 꿈에서라도 邪心을 가졌던 것을 부끄러히 여겨 懺悔하고선 聖容(觀音像) 앞에 贖罪하고 私財를 털어 淨土寺를 짓고 오로지 修道에 精念하다가 西往한 것이다.

觀音菩薩이 부처의 몸이면서 菩薩로 存在하는 이유는 純然히 衆生을 救濟하자는 데 큰 目的이 있다. 부처의 몸으로 있으면 衆生을 救援하지 못한다는 원리는 없지만 教理的으로 봐서 般若婆羅蜜多와 부처의 깨달음 중에서 진실로 衆生의 괴로움과 直接的으로 關係를 갖는 것은 菩薩이 本體가 되기 때문이다.<sup>13)</sup>

三國遺事を 통하여 觀音菩薩의 靈驗譯을 찾아보면 臺山 月精寺에는 五類 聖衆의 異蹟이 古寺誌에 전한다.

① 慈藏法師가 五臺山에 觀音眞身을 瞻禮하기 위하여 山麓에 茅屋을 짓고 七日동안 기도를 올렸으나 眞身이 보이지 않아 다시 妙梵山으로 자리를 옮겨 淨岩寺를 세워 精進하였다. ② 그 후 信孝居士란 佛子가 있어 母親을 奉養하기를 孝誠으로 하였다. 그의 모가 고기가 먹고 싶다가에 고기를 구하려 山野를 헤매고 있었다. 때마침 길에서 鶴 다섯마리를 보고 쏘았더니 그 중 한 마

13) 金煥泰, 新羅의 觀音思想, 民族文化社, 1987. pp. 217~240.

리가 깃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 가 버렸다. 그 떨어진 것으로 사람을 보니 모두 畜生으로 보였다. ③ 信孝는 고기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모친에게 제공한다. ④ 그 뒤에 信孝는 出家하여 자기의 집을 회사하여 절을 지으니 孝家院이다. 信孝가 慶州境界에서 河率에 이르러 이곳에 머물고자 길가에서 만난 老婦에게 살만한 곳을 묻는다. 그 老婦는 西嶺을 넘으면 북쪽으로 향한 동리가 있음을 암시하고선 간테를 풀었다. 信孝는 곧 觀音의 示顯임을 깨닫고 慈藏이 옛날 세운 茅屋에 가서 道場을 열었다. ⑤ 어느날 忽然히 다섯 중이 와서 옛날에 가져간 袈裟 한 벌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信孝는 놀라 옛날 학의 깃을 내어 보이니 중은 자기의 뿔어진 가사에 맞추었다. 꼭 맞아떨어졌다. 信孝는 그 다섯 학이 五類聖衆임을 뒤늦게 깨달았다.<sup>14)</sup>

觀音의 示顯은 到處에 있다. 觀音의 化身은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信孝의 孝誠을 시험한 것은 물론 信孝를 독실한 修道者로 만드는데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月精寺의 五類聖衆과 九層石塔이 聖蹟이 될 때까지는 信孝居士의 觀音信仰에 의한 결과다. 觀音은 참으로 超自然的 救世主다. 큰 반야와 큰 자비의 실천자요, 피로운 세계의 救援者요, 極樂世界의 案内者요. 다른 종파의 너그러운 포용자다. 진실로 衆生과 苦惱를 함께 하려고 부처의 자리까지 박차고 久遠의 菩薩<sup>15)</sup>로서 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으로 世界를 統御하는 顯示의 統御者이다.<sup>16)</sup>

北山 金剛嶺에 있는 栢栗寺에는 大悲像 하나가 있는데 製造年代를 알 수 없으나 하도 應驗이 있어 中國의 神匠이 衆生寺 塑像을 만들 때에 함께 한 것으로 전한다. 그 절 法堂 앞 돌바닥 위에는 발자욱이 나있는데, 이 발자욱은 일찌기 觀音菩薩이 切利天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法堂에 들어갈 때 남긴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觀音이 花郎 夫禮郎을 구하여 돌아왔을 때 남긴 자취라고도 한다.<sup>17)</sup>

14)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台山月精寺 五類聖衆

15) 高翊普, 관세음보살 신앙과 구제원리, 南大忠宗正猊下華甲紀念出版, 1986(서울), p. 47.

16) 「五根者 所謂 眼·手·鼻·舌·身根」〈俱舍論1〉

「於清淨法中 信等五根有增上用 所以者何 由此勢力伏諸煩惱 引聖道故」〈俱舍論3〉

17)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栢栗寺.

孝昭往 3年 9월에 國仙이 된 夫禮郎이 郎徒 천명을 거느리고 金蘭으로 出遊했다가 北溟의 境界에서 狄賊에게 사로 잡혀 갔는데 모두 歸還하고 安常만이 夫禮郎을 구하려 狄賊을 쫓았다. 이때에는 나라에서 護國神寶인 琴笛까지도 잃어서 國王은 근심에 차 있었다. 한편 夫禮郎의 兩親은 栢票寺 大悲前に 아들의 無事歸還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香卓위에는 잃어버린 琴笛 二寶가 놓이면서 夫禮郎과 安常이 大悲像 뒤에 이르러 있었다.

兩親은 기뻐서 그 간의 來歷을 물었다. 夫禮郎은 그 동안 敵國 大都仇羅의 집 牧子가 되어 들에서 放牧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容儀瑞正한 스님 한 분이 琴·笛를 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을 권한다. 스님을 따라 海邊으로 나가니 安常도 함께 만나게 되었다. 스님은 琴을 두 개로 나누어 夫禮郎과 安常을 타게하고 스님은 笛을 불면서 不知中에 신라로 오게 되었다.

夫禮郎은 그 간의 사정을 자세히 왕에게 고하고 國寶 琴·笛도 나라에 바치게 되니 왕은 金銀器 두 벌, (각 50兩重)과 摩訶袈裟 다섯 벌과 大絹三千疋과 田一萬頃을 栢票寺에 施納하여 大悲의 恩德에 報答하고 이 神笛을 萬萬波波息笛에 封하였다.<sup>18)</sup>

이 說話의 敍事構造는 적어도 三流型의 설화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 (1) 花郎의 護國說話
- (2) 觀音의 示顯說話
- (3) 萬波息笛의 靈驗說話.

등이다. 이런 類型의 說話는 新羅의 國家觀이나 民族觀를 總體的으로 結集하는데 크게 寄與했다고 본다. 일종의 愛國說話의 形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新羅 禹金星에 寶開라는 貧女가 있었는데 그 아들 長春이 海商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았다. 애를 태우던 그의 모는 海藏寺 觀音像에 가서 七日間이나 祈禱하였다. 이 절은 角干 敏藏이가 그의 집을 喜捨하여 지는 것인데 靈驗이 많았다. 그러하던 중 갑자기 어느날 長春이 돌아왔다.

그 來歷을 물은즉 長春은 회오리바람에 難破되어 同行은 겨우 免死하여 吳에 닿았다. 그곳 吳人들이 매일같이 들에서 밭갈이를 시켰다. 어느날 하루는

18) 新羅 第31代 神文王 시대의 「萬波息笛」 說話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호국설화와 결합되어 다시 후대의 불교설화와 융합되어 신라의 국가적 설화로 정립된다.

중이 신라 사람처럼 와서 은근히 나를 慰勞하며 이끌고 같이 갈새 앞에 큰 강이 나타났다. 그 중은 옆겨드랑에 長春을 끼고 뛰더니 어렴풋하게 우리말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림으로 살펴보니 벌써 신라에 와서 있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때 뿔을 떠나 여기에 이른 것이 겨우 밤 여덟 아홉시였다. 이 말을 들은 景德王은 敏藏寺에 田畝와 財弊를 주어 布施케 하였다.<sup>19)</sup>

觀音菩薩의 진실한 要諦는 首楞嚴經에 실려 있는 觀世音菩薩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說法이다.

「이 때 觀世音菩薩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頂禮하고 부처님께 사죄였다. 世尊이시여! 제가 생각하니 수 없는 恒河沙劫 전에는 그 부처님이 세상이 나시니 이름이 觀世音이셨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에게서 菩提心을 내었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어 聞·思·修로 좇아 三摩地에 들라 하셨습니다.<sup>20)</sup>

觀音菩薩의 新羅의 顯示는 觀音思想의 根本敎理에 原理를 둔다. 觀音은 人類를 救災하기 위하여 恒河沙劫전에 이미 宗教的 責務를 담당하게 된다. 觀音에 있어서 圓通法門이란 부처님의 直接的 敎示가 아니고 法會를 통한 弟子各自로서의 그 깨달은 바의 入道因緣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自述한 여러 菩薩들의 悟道の 契機는 二十五圓通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重視되는 眞理가 바로 觀音菩薩의 耳根圓通인 것이다.<sup>21)</sup>

耳根은 소리를 듣고 그 認識을 이끌어 내는 聽覺作用이기 때문에 觀音은 이 十方世界 어느 곳에도 귀를 기우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觀音은 三慧의 名數까지도 通達하고 있기 때문에 聞·思·修의 지혜로 衆生의 一舉一動을 洞察<sup>22)</sup>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存在하는 人間萬像에 대하여

19)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敏藏寺

20) 「爾時觀世音菩薩即從座起 頂禮佛足而白佛言 世尊憶念 我昔無數恒河沙劫 於時有佛出現 於世名觀世音 我於彼佛發菩提心 彼佛教我從聞思修入三摩地」〈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觀世音菩薩耳根圓通章 唐天竺沙門般刺蜜帝譯〉

21) 1. 音聲, 2. 色因, 3. 香因, 4. 味因, 5. 觸因, 6. 法因, 7. 見元, 8. 息空, 9. 味知, 10. 身覺, 11. 法空, 12. 心見, 13. 心聞, 14. 鼻息, 15. 法音, 16. 身戒, 17. 心達, 18. 火性, 19. 地性, 20. 水性, 21. 風性, 22. 空性, 23. 識性, 24. 淨念, 25. 耳根.(楞嚴經 56)

22) 1. 開慧: 經敎를 見聞하여 생기를 智慧, 2. 思慧: 理를 思惟하므로 생기는 智慧, 3. 修慧: 禪定을 닦아 생기는 智慧. 앞의 二慧는 散智로서 修慧를 나타내는 緣이 되고, 修慧는 定智로서 바르게 斷惑證理함에 쓴다.

그 불쌍하고 어려움을 헤아려 사건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觀音은 圓通大士<sup>23)</sup>의 稱號를 갖게도 된 것이다.

前述한 新羅의 모든 설화들은 觀音의 超自然的 超人間的 顯示로 모든 것을 解決하였다. 愛人이 필요있는 사람에게는 짝을 지어주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접지하고, 難破 당한 商人들에게는 歸鄉의 길을 열어 주고, 道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可住處를 마련해 주고, 적에게 불모 당한 사람에게는 그 사술에서 풀려 돌아오게도 하였다.

이러한 思想的 背景은 觀音菩薩의 耳根圓通章<sup>24)</sup>에 明記되어 있다.

「萬若 어떤 衆生이 男根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하면, 내가 그 앞에서 童男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여 成就케 하나이다.

萬一 處女가 처녀의 몸을 좋아하여 侵犯하여 橫暴함을 바라지 않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서 童女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여 成就케 하나이다.」

觀音菩薩의 靈驗은 十方世界의 衆生을 위하여선 어느 곳, 어떤 일이라도 示顯의 契機를 마련한다. 그러나 新羅 大乘佛敎에 있어서는 新羅的 觀音力에 의해서만 救難事業이 進行된다. 비록 신라 중생들이 中國이나 異邦民族과의 艱難이 생긴다하더라도 반드시 救援의 觀音示顯은 신라의 중생을 구원하는 쪽에 선다. 이것이 신라 土着佛敎의 象徵的 意味다.

童男·童女의 몸이라도 보존하고 싶은 것이 衆生의 소원이라면 觀音은 그의 顯示力으로 全智全能의 靈驗을 발휘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외의 衆生이라 할지라도 有形·無形·有想·無想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인간으로 變身시킬 수 있는 超能力까지 갖춘 것이 觀音菩薩의 無畏功德의 힘이다.

義湘이 江原道 洛山寺에 新羅의 觀音道場의 本源을 設立하고 이후 衆生들의 生活相에는 수다한 사건들이 유발되었지만 그 때마다 觀音의 普門 示顯이 이것을 克服해 온 것이다. 興敎寺의 莊人 調信은 修道人이기 때문에 童貞을 버릴 수가 없어 꿈속에 나마 俗人을 만들어 夫婦生活을 영위케하고선 끝내 童貞을 지키게 한다. 調信은 假寢이라할지라도 修道人의 本業을 堅持하지 못

23) 「性體周徧曰圓 妙用無碍曰通 乃一切衆生本有之心源 諸佛菩薩 所證之聖境也」〈三藏法數 46〉「阿難及諸大衆 蒙佛開宗 慧覺圓通得無疑惑 又吾今問汝最初發心悟十八界 誰爲圓通 從何方便 入三摩地 如吾所證音聲爲上」〈經5〉 行 行

24) 「固是塵塵俱法界 此方獨撰耳圓通」〈釋門正統〉

했다는 이유로 깊이 참회하고 童男의 몸으로 淨土寺의 師主가 된다.

觀音의 普門示顯은 白月山 修道人에게도 적용된다. 이 道場의 山主 努勝夫 得과 怛怛朴朴 說話의 敍事構造에 있어서는 娘子의 몸으로 現身한다. 觀音의 菩薩行은 努勝夫得과 怛怛朴朴에게 무서운 克己의 시련을 안겨준다. 觀音은 産母로 變身하여 修道僧들의 精進을 실험한다. 山門道場은 女人의 禁已區域이다. 이 境界線을 通過해야만 修道僧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夫得과 朴朴은 觀音의 시험에 合格한다. 두 스님은 蓮臺를 타고 西方世界의 聖界에 入門한다. 觀音은 결국 二聖을 成佛케하는 示縣을 한 것이다.

觀音의 普門示顯은 新羅 三十六坊에 고루 미쳤다. 國仙 夫禮郎을 狄賊으로부터 救出한 應驗이나 잃어버린 國寶 琴·笛를 國庫에 다시 歸納케 한 사실은 護國佛教의 大要를 布施케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貧女의 子息 長春을 吳國에서 脱出할 수 있도록 도와 준 示顯들은 觀音菩薩의 新羅의 靈驗을 誇示하는 國際의 力學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觀音說話의 발달은 新羅人들의 生命保存와 國家安危를 염려하는 愛國的 次元에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 III. 十一面·千手觀音信仰의 新羅的 體驗

新羅의 初期 觀音信仰은 義湘에 의해서 本源의 示顯이 唱導되고 元曉의 靈驗의 史實에 의해서 確實한 體系를 完遂했다. 佛教信仰의 전반에 있어서 觀音信仰이 차지한 비중은 큰 것이라 보아진다.<sup>25)</sup> 그것은 人間生活과 직결되는 現實苦의 解脱이나 祈願의 成就에 알맞는 理想的 信仰 形態였기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十一面·千手觀音信仰의 性格이 原來 傳來의 密教와 紐帶가 깊고, 또 巫覡信仰과도 融和가 잘 이뤄져 攘災招福과 除患愈病 등의 祕法的 要素를 널리 受容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이것은 觀音淨土信仰이 阿彌淨土信仰과

25) 金戊祚, 新羅 觀音說話의 神祕的 體驗, 龍淵語文論集(4), 慶星大

26) 南無亡國 利尼那帝 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龜伊娑婆訶」新羅密教는 陀羅尼經典의 眞言을 諷刺로 사용했는데 이 글은 眞聖女王의 失政을 비꼬은 것이다. “利尼那帝”는 女王이고, “于于三阿干”은 寵臣, “龜伊”는 女王의 乳母를 지칭하는 것이다.

더불어 庶民性을 지닌 宗教이면서 보다 더 親密感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우기 十一面, 千手觀音信仰은 素朴한 現世的인 敬天的 巫俗的 信仰과도 密接한 關聯性을 갖고 있었다.

印度에 있어서도 原始佛敎인 婆羅門敎에 있어서는 阿耆尼(火神) 蘇摩(酒神) 蘇利耶(日神) 등을 信奉했고, 神格的 存在者로서는 梵天(Brahmg)을 필두로 三十三天의 能天主 帝釋天(Sakko devá nonindo), 四方守護의 四天王(Catumahá) 등을 섬긴 것은 新羅人들이 傳統的으로 지너온 宇宙觀과 相通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sup>27)</sup>

이러한 巫俗的 宇宙觀이 傳統的으로 世俗化되어 있었는데 다시 東漸해 온 密敎도 역시 같은 思想的 背景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基層社會에서는 그 信仰體系가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十一面 觀音神呪經에 의하면 이 十一面 觀音菩薩은 密敎系인 胎藏界 曼荼羅 가운데 蘇悉地院에 配置되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또 慧超는 中國 五台山 乾元菩提寺에 入住하여 「賀玉女譚祈雨表」, 「大乘瑜伽金剛性曼殊寶利千臂千鉢大敎王經序」<sup>28)</sup> 등을 撰述한 것을 보아도 이 두 菩薩信仰의 新羅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善德王때 明朗法師가 唐으로부터 帛尸梨密多羅(Shrimitra) 譯인 「佛說灌頂伏魔卦印大神呪經」 등에 의해 神印祕法을 傳授하여 所謂 文豆樓祕法(mantra)을 布敎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方位神으로 狼山 神遊林에 密壇을 마련하고 五方에 神像을 모시어 東征兵船을 沈沒케 하여 이름을 크게 떨쳤다.<sup>29)</sup> 이 方位神의 役割 規定이 十一面, 千手觀音 등의 示顯 靈驗과 같았기 때문에 傳統的 汎神 思想과 모두 그 世界觀을 함께 하므로해서 土着化는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密本大德은 「藥師經」을 讀誦하면서 善德王의 疾病을 祕密作法으로써 治癒했고, 惠通은 黑白 두 종류의 大豆를 呪하여 神兵으로 하여금 唐 高宗의 公

27) 「나는 梵天이다. 大梵天이다. 勝者이며, 不敗者이다. 全智者요, 支配者요, 自在하며, 作者이다. 計畫者이며, 最勝者이며, 分配者이다. 過去, 未來의 聖父다. 모든 衆生이 나로부터 만들어지나리다」.

〈長含 第14 梵動經 木村泰賢著, 原始佛敎思想論,

28) 韓國文化史大系11,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pp. 235~238.

29) 三國遺事, 卷 第5 神呪6 明朗神印 및 卷 第1紀異 第2 文虎王法敏

주의 병을 고치기도 했다.<sup>30)</sup> 十一面, 千手觀音菩薩이 인간의 생명을 어떤 부살보다도 救援하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藥師經」의 영향이라 보아진다.

新羅의 密敎가 渡唐僧들에 의해서 즉각 傳來될 수 있었고, 또 布敎가 쉽게 受容될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의 傳統인 巫覡의 宇宙觀과 共通點을 널리 包容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더구나 密敎系統의 佛敎가 바로 인간사를 담당하고서 삶 자체에 投影되어 人間苦라고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解決해 주었기 때문이다. 觀音菩薩에는 三十三身의 普門顯示가 있으나 人間事를 積極的으로 해결하는 菩薩은 十一面觀音과 千手觀音인 것이다.

### 1. 十一面觀音信仰의 靈驗的 示顯

十一面觀音의 原語는 日壹迦娜舍目佉(ckadaś a-mukha)이고, 西藏語로서는 buccgigshal인데 譯語로는 十一面觀音菩薩, 十一面觀自在菩薩, 大光普照觀世音菩薩이라 한다.<sup>31)</sup>

十一面觀音信仰의 思想的 背景은 三部經에 기초한다. 那舍堀多, 玄奘, 不空 등의 譯本인 十一面經이 곧 그것이다. 이 三經 가운데 耶舍堀多, 玄奘本에 의하면 觀音의 팔뚝은 二臂로 되어 있고, 不空譯本에는 四臂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六臂, 八臂가 달린 조상도 흔히 볼 수 있다.<sup>32)</sup>

이 세 譯本을 근거로 해서 十一面觀音의 모습을 상고하면 身長은 一尺三寸, 오른 쪽 첫째 손에는 意味, 둘째 손에는 施無畏, 왼 쪽 첫째 손에는 蓮華, 둘째 손에는 軍持를 가졌다. 얼굴은 전체가 십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三면은 寂靜相, 오른 쪽 三면은 威怒相 왼 쪽 三면은 利牙出現像이고, 뒤면에 붙어 있는 一面은 笑怒容, 頂上에 얹혀져 있는 일면은 如來相이다.<sup>33)</sup>

이것을 좀 더 具體化하면 왼 쪽 얼굴의 瞋目은 金剛部을 나타내고, 앞 쪽의 菩薩面은 寶部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菩薩面은 蓮華部를 나타내고, 뒷면의

30) 三國遺事 卷 第5, 神呪 第6 密本摧邪

31) 織田得能: 佛敎大辭典, 大倉書店(東京) 大正5年

32) 望月佛敎大辭典, 世界聖典刊行協會(東京) 昭和48年

33) 앞의 책과 같다.

暴惡大笑하는 모습은 羯磨部를 나타내고, 머리에 이고 있는 얼굴은 佛部를 나타낸다. 左·中·右의 三面은 胎藏界 三部를 나타내고, 몇 개의 念珠는 金剛部를 나타내고, 軍持는 寶部, 蓮華는 蓮華部, 施無畏手는 羯磨部, 이 四部를 完全히 具存한 상태가 佛部인 것이다.

이러한 十一面觀音의 影像을 근거로 해서 新羅 觀音像을 照明하여 이 菩薩이 象徵하는 「禪俗不二」의 要諦를 新羅精神에 맞추어 展開해보고자 한다. 現存하는 신라시대의 十一面觀音像으로서는 石窟庵 壁面의 浮彫가 대표가 될 것이다. 이 觀音像은 팔뚝은 두 개로 頂上 中央에는 化佛을 立像으로 安置하였다. 얼굴 모습은 左右로 각각 三面으로 되어 있고, 다시 그 위에 三面을 엮고 왼 쪽 손은 곱혀 花瓶을 간직하게 했으며, 오른 쪽은 밀으로 늘어뜨려 瓔珞의 끝을 쥐게 하고, 蓮花 위에 세웠다. 분위기는 相好豐滿하여 全體의 모습은 너무도 잘 정돈되어 있다. 이것이 신라의 불국토의 축소된 모습이며, 신라인의 분위기인 것이다.<sup>34)</sup>

신라에 있어서 十一面觀音菩薩의 信仰은 十一面觀世音神呪經을 所依經으로 한다. 즉 觀音菩薩이 佛에게 白言하기를

「世尊이시여, 저에게 十一面이라고 이름하는 心呪가 있습니다. 이 心呪는 十一億 諸佛이 說하신 바로서, 내가 지금 衆生을 위하고,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善法을 念하기 위하고, 一切의 障礙災怪와 惡夢을 除滅하고자, 一切의 橫病死을 없애고, 一切의 諸惡心者로 하여금 惡心을 없애고 調柔하게 하고자, 一切의 諸魔 鬼神을 除하여 障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이것을 說하는 것입니다.」<sup>35)</sup>

十一面觀音의 精神은 「心呪」에 있다. 佛家의 術語로서의 「心呪」는 「大呪·小呪·一字呪」가 있는데 이 중 一字呪를 일러 「心呪」라고 이른다. 이 精神의 총체가 陀羅尼다. 다시 말하면 如來心中의 勝法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진

34) 「十一面觀音의 표현에 있어서 正面에는 慈悲慈愛의 얼굴, 그 위·좌우로는 회노에 락을 나타내는 작은 얼굴들이 표현되었다. 이 관상상은 풍만한 얼굴에 시원스럽게 낀 눈썹, 매끈한 콧날에 도뿔한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아담한 입술을 살짝 다물어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었다.(中略) 참으로 섬세하고 승고한 女性美를 나타내주는 得意의 佳作이다. <秦弘燮·安章憲, 石佛>, 1982.

35) 十一面觀音經系는 十一面觀自在菩薩心蜜言念誦儀軌經(3卷) 唐의 不空譯, 十一面觀世音神呪經(1卷) 宇文周耶舍曇多譯, 十一面神呪心經 唐의 玄奘譯, 慧沼의 疏, 道倫의 疏1卷 등이 있다.

실된 마음의 本體라면 禪俗一如의 견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신라에 觀音信仰이 도입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통일직후에 大德인 智仁과 道倫이 각각 十一面經疏를 撰述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이 전<sup>36)</sup>에 觀音信仰이 광포되어 있었음을 知悉한다. 원래 신라에도 原始佛敎 형태의 土着的 密敎가 巫敎와 混融되어 巫堂의 呪術과 더불어 陀羅尼 中心인 眞言 念誦의 低級한 宗教가 祈福中心으로 庶民階層에 도입되었을 것이다. 이 영향을 크게 입은 것이 觀音信仰 중에서도 十一面觀音의 正神인데 基層社會에 있어서는 性格的으로 好感이 가는 信仰體系였던 것이다.

앞에서 例示한 것처럼 一切 衆生에 대한 菩薩의 役割이 善法을 屛하여, 憂惱에서 벗어나게 하고, 惡夢을 除滅하고 온갖 災害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疾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라면 新羅의 全國土 全生命은 이 榮光 속에 있는 것이다. 觀音菩薩의 威懾은 그 示顯하는 모든 곳에 應驗된다. 더구나 가난한 土民이나 불쌍한 民草들의 基層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간절한 救援의 靈驗으로 發顯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神文王 때 大德 憬興은 幼年에 出家하여 三藏에 通達했다. 왕이 즉위하여 높이어 國老로 삼고 三郎寺에 머물게 했다. 갑자기 병이 나서 여러 달이 지났는데 어느날 한 女僧이 와서 보고 華嚴經中 善友原病<sup>37)</sup>의 說로서 말하기를

「지금 大師의 병은 憂勞의 所致니 喜笑하면 나오리라」

하고선 十一相을 만들어 웃음거리 춤을 추게하니 그 變態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웃어줬는데 그후 大師의 병은 不知不識中에 깨끗이 나왔다. 이 女僧은 문을 나가 南菴寺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가졌던 지팡이는 幀畫 十一面通像 앞에 있었다.<sup>38)</sup>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他人의 靈魂을 救災해 줄 수 없다. 人間은 오직 自

36) 智仁撰, 十一面經疏(奈良朝, 一切經疏 目錄222. 勝寶3 東洋文庫論叢 第10輯), 附錄 p. 115. 道倫撰, 十一面經疏(東城傳燈錄 弘經錄1. 衆經部 新修藏 第55卷 p. 1152. 下), 注進法 相宗章疏 p. 1141. 中)

37) 心經에는 根本 神呪로서 呪水, 呪衣, 呪香, 呪華, 呪油, 呪食, 呪火, 結果, 行道등을 例擧하여 原病治愈에 活用한다.

38) 三國遺事, 卷 第5, 感通, 憬興遇聖

身만이 自己를 구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宗教人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말이다. 이 설화에 있어서 觀音의 역할은 助産員의 役割이나 등반의 案内者의 역할이다. 궁극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대답은 어떤 知性的說明에 의해서 주어질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진실로 開悟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실된 洞察을 저해하는 마음의 구성물을 제거하는 것이다.<sup>39)</sup>

觀音은 懽興의 병을 오로지 助産할 다름이다. 그의 마음이 自由롭고 妨害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善友病說을 이용했다. 觀音은 「起我行」에 있어나와 더불어 함께 할 착한 사람이다<sup>40)</sup> 觀音은 懽興에 있어서는 隨順의 善行者인 것이다. 觀音菩薩의 叡智는 根本的으로 인간 存在의 本質을 꿰뚫어보는 기술(art)을 가졌으며, 束縛전에서부터 自由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줄 다름인 것이다.

이 敘事構造의 樣相으로 보아서는 觀音(十一面)의 所依經典인 十一面心呪에 「欲除一切衆生病故」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藥物 治療가 添加되지만 여기에서는 一切 排除되고 오로지 十一面相의 多貌示顯으로서만 愈病된다. 이 十一面相의 意味 象徴이 바로 十一面觀音의 本質의 性格이다.

오늘날도 巫女들의 곳에는 劇的인 表白이 있다. 人間社會의 중요한 事象인 生과 死, 肉體와 靈魂과의 문제를 自然의 理法에 물어 模擬的 演出을 하는 것이 薦新의 感謝祭이다. 이 模擬的 演出이 人間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處容說話에 있어서 南山神이 御前에서 춤을 춘 것은 神顯現(theophony)의 象徴性이다.<sup>41)</sup> 觀音信仰의 宗教的 神顯現은 十一面이란 假面的 示顯이다. 群生教化에 있어서 民衆의 契約은 十一面相의 多樣한 機能으로 約束된다. 懽興은 당시대의 民衆을 대표하는 代弁자가 된다. 懽興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群生을 代身한 教化의 標本인 것이다.

觀音相의 十一面中 前面의 三面은 慈相으로 善의 衆生을 향해 慈心을 나타내게 하는 象徴으로 大慈與樂을 意味한다. 左面의 三面은 瞋面으로 惡의

39) E. 프롬(金鎔貞譯), 禪과 精神分析, 正音社, 1978. pp. 87~90.

40) 「起我行故名善友」(探玄記6) 「善友」는 梵語로 賀里也 曩密恒羅(Kalyā namitra)

41)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以像示之 神之名曰 或曰 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或曰御舞山神」三國遺事, 紀異 第2, 處容郎, 望海寺.

衆生을 향해 悲心을 나타내게 하는 象徵으로 大慈救苦를 意味한다. 右面의 三面은 白牙上出의 모습으로 淨業 修行者를 향해 希有의 讚辭를 나타내게 하는 象徵으로 佛道勸進을 의미한다. 마지막 一面은 暴大笑面으로 善惡雜穢의 衆生을 향해 怪嘆을 나타내게 하는 象徵으로 惡을 물리치고 善修行으로 引導하는 意味를 갖는다. 또 頂上의 佛面은 大乘의 佛道를 習行케 함을 나타내고 諸法을 닦아 佛道를 完遂케 함을 象徵한다.<sup>42)</sup>

이 十一面의 相은 觀音의 變貌樣相을 통해 神示顯의 神祕性을 宗教적으로 克服하고자 하는데 그 象徵性을 갖는 것이지만 民衆의 性格에 있어서는 新羅 基層社會의 人間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民衆의 얼굴은 喜怒哀樂으로 千差萬別이 있어 개개인의 立場이 있다. 이 祈福의 哀歡의 克服은 오로지 觀音의 普門顯示로서만 可能한 것이다. 진실로 土俗의 人間群像들의 참모습이 十一面相에 응집되어 있다. 이 變化無雙한 神祕的 樣相이 新羅 全國土의 人間 淨土化에 있음이 그들의 最大의 理想이었음을 自覺하게 된다.

## 2. 千手觀音信仰의 新羅的 示顯

千手觀音은 천 개의 손을 가진 觀音이라는 연유에서 붙여졌다. 千手觀音의 所依經典인 千手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慈心陀羅尼經에 의하면 「千眼千首千足千舌千臂觀自在」라 이름하여 있다. 梵語로는 沙訶沙羅部惹阿制吒路帝濕婆羅(sahasrabhujâ râ s valokitoś vara)이고, 西藏語로서도 spyanrasgzigs-phyag phyag-stonispyanstoni이라 한다.<sup>43)</sup>

千手觀音信仰도 十一面觀音과 더불어 新羅의 傳來는 자세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千手觀音의 信仰은 千手經을 所依經으로 한다. 現在도 觀音菩薩信仰에 있어 千手經을 기초로 하는 것은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慈心陀羅尼經을 줄어서 千手經이라 하기 때문이다. 韓國에 傳來되는 悉曇本도 釋門 儀節에 所載되어 있는 것을 台本으로 하여 金剛智譯 千手陀羅尼呪本 悉曇文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千手觀音信仰도 十一面觀音信仰처럼 密教陀羅尼 眞言의 呪術的 祈福形態를

42) 十一面神呪經義疏

43) 織田得能：佛教大辭典 大倉書店(東京) 大正5年

띠고 있었던 것이다. 原來 觀音의 示顯的 分化도 多岐했지만 新羅信仰에 있어서의 유달리 千手와 十一面觀音이 절대적 우위에 놓였던 것도 사실이다.<sup>44)</sup>

「韓國 佛敎의 顯·密 兩敎中 密敎의 位相 그것이다. 우리 韓國에 密敎가 傳來된 以來 新羅·高麗의 國家 社會와 國民 大衆에게 密敎 本有의 使命인 鎮護國家, 攘災招福의 密敎의 信仰思想이 끼친 바 影響은 實로 至大하였고, 그 發展敎勢 또한 자못 繁盛한바 있었으나 近代에 이르러서는 密敎의 名相마저도 一般 大衆이 알지 못하는 境地에까지 이르렀다」<sup>45)</sup>

七世紀 後半에 와서 크게 興起한 秘奧眞實의 敎法인 祕敎는 統一의 餘勢를 몰아 鎮護國家, 攘災招福에 이바지 한 바가 至大했다고 볼 때 經典의 解釋이나 說明보다는 呪文이나 眞言의 深密 幽玄에 힘을 입고 大日如來의 神力으로 究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傳統의 巫격의 呪文이나 眞言들이 여기에 다시 融合되어 이미 基層社會에 깊이 뿌리 박고 있던 土俗의 信仰體系도 千手觀音이나 十一面觀音信仰같은 庶民敎敎의 理想化에 觸媒가 되었던 것이다.

#### 觀世音菩薩 根圓章에도

「저는 여러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그지없이 비밀한 神呪를 말하나이다. 그 중에서 一首, 三首, 五首, 七首, 九首, 十一首 내지 一百八首, 千首, 萬首, 八萬四千 燄迦囉首를 나무기도 하고, 二臂, 四臂, 六臂, 八臂, 十臂, 十二臂, 十四, 十六, 十八, 二十, 二十四臂 내지 千臂, 萬臂, 八萬四千 母陀囉臂를 나무기도 하고, 二目, 三目, 四目, 九目 내지 一百八目, 千目, 萬目, 八萬四千 淸淨寶目을 나무기도 하는데, 혹은 慈悲하게 혹은 威嚴있게 혹은 定으로 혹은 慧로 衆生을 救護하여 大自在를 얻나이다」<sup>46)</sup>

千手觀音은 千眼千臂로서 十方世界를 千光自在한다. 金色의 손으로 나의 頂上을 쓰다듬고, 心呪로서 未來 惡世의 一切衆生을 위하여 널리 大利樂을 짓는다. 十方의 大地가 六種震動하고, 十方의 千佛이 모두 光明을 놓아 觀音의

44) 田炳德：大慈大悲 觀世音菩薩：大韓佛敎天台宗, 1986, p. 309.

45) 朴泰華：新羅時代의 密敎傳來考

46) 「故我能現衆多妙容 能說無邊祕密神呪 其中或現一首三首五首七首十一首 如是乃至一百八首 千首萬首八萬四千燄迦囉首 二臂四臂六臂八臂(中略) 如是乃至一百八臂千臂萬臂八萬四千母陀囉臂(中略) 或慈或威或定或慧救護衆生得大自在 <大佛頂如來蜜因修證>」

몸을 비추니 十方的 無邊世界가 고루 한 울타리로 安樂케 되는 것이다.<sup>47)</sup>

千手觀音의 役割을 좀 더 具體的으로 알아 보면 十波羅蜜에는 ① 施에는 財施, 法施, 無畏施가 있고, ② 戒에는 三聚淨戒, ③ 忍에는 耐冤害忍<sup>48)</sup>, 安受苦忍, 諦察法忍이 있고, ④ 進에는 被甲精進, 攝善精進, 利樂精進이 있고, ⑤ 禪에는 安住靜慮, 引發靜慮, 辨事靜慮가 있고, ⑥ 慧에는 加行智, 根本智, 後得智가 있고, ⑦ 方便에도 廻向方便, 拔濟衆生方便이 있고, ⑧ 力에는 思擇力, 修習力, ⑨ 智에는 受容法樂智, 成熟有情智가 있다. 이것은 모든 修行者의 行法으로서 菩薩 또는 禪者의 基本的인 德目이다. 다시 이것을 包括的으로 定義하면

- ① 布施(dá na-charity)
- ② 持戒(sí la-precepts)
- ③ 忍辱(kás nti-humility)
- ④ 精進(virya-energy)
- ⑤ 禪定(dhyá na-meditation)
- ⑥ 智慧(prajñ á -wisdom)

① 布施란 오로지 주는 것이다. 一切衆生의 幸福과 利益을 위하여 무엇이 라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物質만이 아니라, 宗教的 知識, 精神的 知識, 法의 智慧를 준다. 衆生을 救援하기 위하여서는 自己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 持戒란 佛陀에 의해서 주어진 戒律이다. 즉 道德的 生活의 規則을 지키는 것이다. 僧伽生活이란 일종의 理想社會로 향하는 平和롭고 和善한 生活을 實現하는 것을 그 理想으로 삼는다. ③ 忍辱이란 忍受로서 自己의 行爲가 認定되지 않아도 屈辱을 생각하지 않으며, 굳이 無視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自然스레 참아 나가는 것이다. ④ 精進이란 語源的으로는 氣力を 意味한다. 이것은 法과 일치하는 것에 종사함에 있어서 언제나 精力

47)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48) 唯識論에는 十波羅蜜을 세워 十勝利하고, 菩薩十地의 行法으로 삼는다. 곧 1. 施波羅蜜, 2. 戒波羅蜜, 3. 忍波羅蜜, 4. 精進波羅蜜, 5. 精慮波羅蜜, 6. 般若波羅蜜, 7. 方便善巧波羅蜜(廻向方便善巧와 拔濟方便善巧二種)般若 8. 願波羅蜜(求菩薩願과 利樂他願二種), 9. 九波羅蜜(修習力 思擇力二種), 10. 智波羅蜜(受用法 樂智와 成熟有情智二種)

의으로 修道에 專念하는 것이다. ⑤ 禪定이란 어떠한 環境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상실을 하지 않고, 그것을 維持하여 나가는 것이다. ⑥ 智慧란 有限한 自我가 그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나와 自己가 無限한 것과 相通하는 것이다. 이 無限이란 모든 有限한 그 限定 때문에 無限한 一切의 것을 包裝하고 있는 것이다.<sup>49)</sup>

千手觀音信仰의 理念體系는 婆羅蜜에 응집된다. 婆羅蜜의 根本精神은 「到彼岸·度無極」에 있다. 이 두 究竟의 眞理는 菩薩의 大行이다. 一切 自行化他的 原理를 衆生에게 배운다. 이러한 大行을 잘 遂行하여 生死의 此岸을 克服하여 涅槃하게 되면 「到彼岸」하게 되고, 또 이 大行을 因緣하여 諸法の 廣遠함을 付度하게 되면 「度無極」하게 되는 것이다. 婆羅蜜의 實踐은 千手觀音의 要諦다.

千手觀音은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세상의 사정을 살핀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억울하고 원한이 맺힌 사람들을 고루 찾아 그들의 어려운 일은 모두 도운다. 그것이 「自化他行」인 것이다. 新羅의 千手觀音은 신라의 一切 衆生을 「到彼岸·度無極」하기 위하여 열심히 婆羅蜜의 精神을 修行하는 것이다.

景德王 때 漢岐里에 사는 希明이라는 아이가 난지 五年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芬皇寺 左殿 北壁畫의 千手大慈像에 가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마침내 눈을 뻤다. 이것이 所謂 千手大慈歌의 敘事的 背景說話다.<sup>50)</sup>

千手觀音經에는 眼盲者가 눈을 얻게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萬若 眼睛을 다친 患者나 靑盲으로 눈이 멀었거나 白暈과 赤膜으로 光明을 잃은 이가 訶梨勒果, 菴摩醯勒果, 鞞醯勒果의 세 가지를 각각 一顆씩을 씹어서 곱게 갈아야 하는데, 이것을 씹어 뺨을 때는 모름지기 부정을 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하므로 婦人이나 猪狗의 새끼 낳는 것을 보아서 아 니되며, 입 속으로 念佛을 해야 한다. 그 三顆 뺨는 것을 白蜜과 사람의 乳汁에 섞어서 眼中에 붙인다. 그 人乳는 반드시 사내아이를 먹이는 母乳를 써야 한다. 그 약들을 다 섞어서 탄 다음에는 千眼觀音像 앞에 갖다 놓고 一千八遍의 誦呪를 하고 眼中에 붙인다. 滿七日이 되도록 深室에 있으면서 바람을 쐬이지 않도록 조심하면 眼睛도 살아나고 靑盲과 白暈으로 失明한 자도 光

49) E. 프롬. R. 데마르티노(金鎔貞譯) 禪과 精神分析, 正音社, 1978, p. 248.

50) 三國遺事, 卷 第3. 塔像,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明을 얻게 된다.<sup>51)</sup>

눈병이나 눈에 먼 데 대한 치료방법은

- ① 樂性方의 植物, 人乳와의 配合
- ② 不淨除去
- ③ 呪文誦讀
- ④ 適宜한 時間 經過

이러한 要件을 土臺로 해서 위의 說話를 分析한다면 「盲兒得眼」 설화에는 具體的으로 藥物의 投與는 없다. 그러나 諸佛經을 고찰해 보면 菴摩勒·訶梨勒·鞞醯勒 등은 「其味酸而甜」하여 心識을 바르게 하며, 「天主將來」하는 것으로 「樂分功用極多」라 했다.<sup>52)</sup> 우리는 傳統的 巫俗에도 救病呪術에는 쑥·마늘·桃枝·菖蒲 등은 呪草로 간주하여 除鬼治病에 效用했다는 民間療法이 있다. 古代 印度에 있어서도 宗教的인 것을 바탕으로하여 除鬼治病이나 眼疾治癒에도 藥草가 이용된 것 같다. 이러한 慣習은 低級宗教일수록, 聖·俗, 善·惡, 淨·不淨 등의 否定的 要素를 肯定的 要素로 聖化시키는데 있었다. 이 聖化의 重要과정인 「呪文誦讀」이다. 藥草의 效驗性은 呪文의 誦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藥草의 效驗은 呪文誦讀의 一回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多回의 反覆性에 있다. 呪文誦讀의 反覆性은 時間의 經過다. 千手觀音의 천의 손과 눈은 이 反覆의 行爲에 의해서 肯定的 效力을 갖는다. 千手大慈歌는 呪文이다. 漢岐里 女人은 아이와 더불어 呪文을 反覆하는데 의해서 千手觀音의 神顯示의 靈驗에 到達할 수 있었다. 千手觀音의 顯示는 盲兒의 呪術的 祈願에서만 宗教的 成就를 完成한다. 이 敘事構造는 宗教以前에 벌써 呪術의 儀禮가 先行되어 있다. 芬皇寺는 漢岐里라는 俗에서의 聖으로 향하는 轉移形態다. 盲兒는 佛教의 因果說에 의해서 宿命的 契機를 맞았지만 漢岐里라는 俗에서는 救援받을 수 없다. 芬皇寺는 宇宙의 中心이다. 傳統的으로는 하느님의 聖域이지만 佛家에서는 千手觀音이 이 聖域의 領主가 된다. 이런 경우 신라인들의

51)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新修藏 第20卷 p. 110.中), 千手千眼觀世音菩薩治病合藥經(新修藏 p. 104.上)

52) 「阿末羅 舊語 菴摩羅 其味酸而甜 可入藥分 經中言如觀掌中者也」〈女應音義21〉 「訶羅勒大如棗大其味酢苦服便利」〈善見律17〉 訶梨怛鷄 舊言阿利勒 翻爲天主將來 此果堪爲藥分功用極多 如此土人參石斛等無所不入也」〈女應音義24〉 「鞞醯勒其形如桃子其味甜」

宇宙觀에는 하느님과 千手觀音이 同格의 資格에서 評價된다. 그러나 前者는 呪術的으로 하느님의 靈魂에 呼訴하지만 後者는 宗教的으로 千手觀音에 祈願한다.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眞言인 呪文이다. 그래서 呪術은 實利的, 打算的인데 대하여 宗教는 精神的, 絶對的인 것이다.<sup>53)</sup>

千手經에는 神呪로서 千手觀音의 種種名을 例示하고 있다. ① 廣大圓滿 ② 無碍大慈 ③ 救苦 ④ 延壽 ⑤ 滅惡趣 ⑥ 破惡業障 ⑦ 滿願 ⑧ 隨心自在 ⑨ 速超上地 들이다. 千手觀音은 이러한 役割을 遂行하기 위한 方便으로 온 몸을 聖物로 治裝하고 있다. 千手觀音曼荼羅 圖像에 의하면 처음 內心地에는 九淨月輪을 갖추고 中央月輪 한 가운데는 施無畏觀音을 安置하고 있다. 이 治裝은 妙色三界를 超越하여 金色暉曜로 갖추었다. 머리에는 髮髻冠을 쓰고 관으로 부터는 紺髮을 垂下했다. 頂上에는 十一面을 갖추고 여러 머리마다에는 寶冠을 쓰고 그 가운데에는 化佛身을 安置시켰다. 菩薩의 몸내는 四十手를 具有하고 하나하나의 掌中에도 하나씩의 慈眼이 달려있다. 諸衆類를 위하여 많은 聖物을 所持하고 蓮花臺에 常住하면서 大光明을 나투어 十方世界를 비춘다.

左手에는 日輪, 右手에는 月輪을 쥐고 있다. 또 왼 쪽에는 宮殿, 戟, 鞘, 靱索, 寶弓, 紅蓮, 白蓮, 軍持, 玉環, 寶篋, 鐵鉤, 金剛杵, 寶螺, 白拂, 寶鐸, 如意珠, 化佛, 寶鉢, 寶鏡, 榜排 등을 配置하고, 오른 쪽에는 五色雲, 錫杖, 寶劍, 寶箭, 紫蓮, 青蓮, 胙經, 鉞斧, 胡瓶, 金輪, 三鈷, 蒲桃, 楊柳, 寶印, 施無畏, 頂上化佛, 髑髏, 寶數, 合掌 등을 갖추었다.<sup>54)</sup> 이러한 寶物은 宗教的으로는 聖物이지만 千手觀音의 役割 遂行에 있어서는 呪術的 象徴物이다. 一切衆生을 救援하기 위한 不可缺의 所持品이다. 宗教的으로는 神聖性을 暗示하고 있지만 呪術的으로 巫具의 구실을 한다. 千手觀音의 影響力은 十方世界 一切衆生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한 原理의 具顯은 다음 說明에게 더 具體化된다. 妙寶臂는 猶尼瞿枝와 같고, 環釧은 臂上에서 내려져 있다. 天依와 瓔珞으로는 大慈의 몸을 莊嚴하게 꾸미고 있는데 그 모습은 圓光微妙色이다. 跏趺坐는 左右로 調和를 이루는데 前月輪은 金剛觀自在, 南方의 月輪은 與願觀自在, 西方의 月輪은 數珠觀自在,

53) 李光奎, 文化人類學, 一一潮閣, 1971. p. 156參照

54) 望月佛教大辭典: 世界聖典刊行協會(東京) 昭和48. p. 2974.

北方은 月輪은 鈎召觀自在 등을 나타낸다. 이 本尊과 四尊은 五智五部를 象徵한다. 또 東南月輪은 除垢觀自在, 西南月輪은 寶劔觀自在, 西北月輪은 寶印觀自在, 東北月輪은 不退轉金剛觀自在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소위 四大觀音이다. 이 菩薩들은 千手觀音의 領導下에서 法利因語를 통하여 人間世를 교화하는 것이다.<sup>55)</sup>

古來로 우리 俗信에 있어서도 除厄과 救病呪術에는 畫像, 文字 符號(符籙)로서 雜鬼를 追放하거나 防止하였다. 芬皇寺 左殿 北壁의 千手觀音畫도 이런 意味로 說明이 可能하다. 千手觀音의 所持 聖物은 除厄과 救病의 象徵物이다. 左手에도 日輪, 左手에는 月輪을 갖는다. 또 左便과 右便에는 高루 神聖한 聖物을 保持하고 있다.

左右合一의 思想은 陰陽의 調和를 나타낸다. 陰陽의 調和는 바로 生産과 創造와 成功을 暗示한다. 千手觀音의 左右 所持 聖物들은 陰陽複合體로 構成되어 있다. 왼쪽의 宮殿, 오른쪽의 五色雲도 이 原理가 適用된다. 宮殿은 聖界이고 五雲色은 宇宙의 主軸이다. 千手觀音의 所持品은 左右로 兩性을 象徵하며, 이러한 聖物들은 調和를 이루므로서 合一體에 이른다.

이 思想을 胎藏界 曼荼羅 圖像에서 그 樣相을 살펴 본다. 千手觀音의 圖像의 造成은 大體의 으로 金色으로 그 높이는 八尺이 된다. 그 構圖는 橫的으로 空間的 構成으로 東·西·南·北으로 菩薩을 排置하고, 上下로는 時間的 構圖로서 위로부터 第一·內心地, 第二院, 第三院, 第四院으로 階層的 秩序를 고려하며 組織되어 있다. 全體的 構圖의 形態는 圖型이면서 사다리 꼴로 되어 있다. 이 奇妙微細한 造形 속에는 千手·千眼이 秘藏되어 있다. 이 千手, 千眼은 一切 衆生을 위해서는 時·空間을 초월하며 救援의 순간을 맞는다. 千手에 들려져 있는 聖物들은 奇奇妙妙하나 그 역할은 衆生濟度에 활용된다. 東·西·南·北을 담당하고 있는 四大觀音은 中央에 安置된 千手觀音을 향해 한결같이 各자의 역할을 맹서한다. 千手觀音 頂上에 安置된 수 많은 菩薩들은

55)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에 의하면 「千手觀音을 염하면 十五種의 惡死에서 벗어나 十五種의 善을 낳을 수 있다.」 「千眼千臂觀世音菩薩治病合藥經」에 의하면 「諸病, 諸鬼의 災難에서 벗어날 수 있고, 虫毒, 難産, 死産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夫婦和樂치 못하면 鴛鴦의 꼬리를 大悲前에 놓고 기원하기를 一千八遍 反覆하면 終身토록 歡善相愛한다」고 한다.

三十三天 切利天 能天主의 命令을 기다린다. 이 圖像의 排置는 縱橫으로 調和로운 秩序속에 놓여 있지만 인간 교화를 위한 上方志向性을 통하여 下方志向性을 추구한다.

上方志向性의 대상은 須彌山 切利天을 의미하고, 下方志向性은 人間世界를 의미한다. 切利天은 三十三天中 가장 높은 하늘이다. 모든 부처는 이 하늘의 能天主 帝釋의 意志속에 있다. 千手觀音도 이 부처의 權能속에 있다. 人間世界의 교화는 千手觀音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 명령 하달자는 언제나 能天主가 담당한다. 宗教的으로 본다면 芬皇寺 道場은 須彌山의 意志속에 연결된 地上의 聖界다. 이것은 마치 帝釋인 하느님 桓因이 弘益人間의 大要를 人間世界에 弘教하기 위하여 桓雄을 下降시킨 敍事構造와 같다. 신라에 있어서 千手觀音 信仰 같은 土俗의 佛敎가 널리 전파보급된 것도 결국은 傳統的 宇宙觀과 그 世界를 함께 한다는 데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은 外來的 要素와 混合하여 전개되는 흐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外來的 要素가 陽性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外來宗教가 表面에 나타난다. 그리고 전통적 巫敎는 陰性化되어 버린다. 완전히 숨어 버리든가 아니면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그 宗教的 文化現象의 底邊에도 陰性化된 巫敎가 깔려 있으면서 그 문화현상을 유지해 왔다.<sup>56)</sup> 이 千手觀音의 信仰體系도 이 두 흐름의 陰陽複合의 신라적 형태라 할 수 있다.

## IV. 結 論

「四次元이란 現代世界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革命을 일으킨 用語다. 自然科學의 분야에서 二十世紀에 들어와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 相對性 理論을 제시하므로써 理論物理學에서 비로소 概念이 이룩되었다. 古典物理學에서 平面的 幾何學이 立體的 幾何學으로 발달하는데 있어서의 基礎的 公式이 三次元의 領域이었다고 한다면 이 立體的 空間 測定の 公式에다 時間性을 導入하므로써 四次元의 物理的 公式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四次元의 時間 空間의 公式을 통해 볼 때 宇宙내의 모든 物理的 現象은 相對性이라는 것이다. 古典物理學에 立脚한 世界像 즉 三次元의 世界를 靜的

56)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出版部, 1978. p. 73.

世界像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四次元의 世界는 動的 世界像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動的 世界像은 絶對性을 否定하게 되는 相對的 存在의 法則이라는 것이며, 三次元의 時間에 담어진 世界像은 巨視的인데 대하여 四次元의 相對的 世界像은 微視的 世界像을 의미하는 것이며, 固定原理가 있을 수 없으며 不確定性 原理를 가지고 確率的으로 바라다 보아야 되는 世界인 것이다.<sup>57)</sup>

지금까지의 現代人은 三次元의 時·空間에서 삶을 營爲해 왔다. 그러나 二十世紀에 들어서면서 四次元이란 概念은 物理學的 領域이 아니라 精神的 領域의 概念定立에도 援用하게 되었다. 이 絶對性에 대하여 相對性, 靜的인데 대하여 動的, 巨視的인데 대하여 微視的인 思考는 人文科學의 精神分野를 洞察하는 先行條件으로 受容되었다.

宗教解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宗教發達이 一次元에서 출발하여 三次元으로 移行하면서 絶對的, 靜的, 巨視的 性格을 克服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sup>58)</sup> 그러나 앞으로의 宗教解釋은 四次元의 世界像을 定立할 때다. 이것이 바로 相對的, 動的, 微視的인 世界觀의 確立이다.

어느 時代 어떤 宗教라 할지라도 그 宗教가 지니고 있는 宿命的 希求는 理想의 追究다. 이 理想의 絶對 追究을 위하여 相對性, 動性, 微視性은 더욱 時代的 要請을 바라고 있다. 우리 人間은 不完全한 集團이다. 新羅의 現代人들도 不完全했다. 그래서 가장 希求한 것이 宗教的 彼岸이다.

우리 古代 信仰의 구조에서도 하느님은 宇宙와 運命의 創造者요, 主宰者로 보았다. 이 때의 하느님의 나라도 相對的, 動的, 微視的 理想郷이 된다. 인간의 歷史는 언제나 인간이 만든 것이었지만 인간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라 思惟했다. 하느님과 인간의 融合, 이것이 없고서는 새로운 世界의 창조는 불가능했다. 인간의 所願成就도 天人合一에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典範은 언제나 人間世界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된다.

57) 柳炳德, 韓國新興宗教, 圓光大出版部, 1974. pp. 46~47.

58) 一次元의 宗教樣相은 民俗信仰의 형태로 汎神論的 現存態에서 呪術로서 社會를 다스린다. 이 때는 通靈, 接靈, 神通, 接神, 口報, 耳報가 활용된다. 二次元의 宗教樣態는 國民的 宗教, 民族의 宗教로 발달하면서 選擇의 一神, 統一神을 세운다. 三次元의 宗教樣態도 信仰의 對象이 하나이면서 普遍的이어야 한다. 그러나 信仰의 主體의 側面에서 信仰心을 문을 닫고 열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柳炳德 앞의 책 참조)

이러한 民間信仰體系로서의 巫教은 外來宗教인 佛敎가 수입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宗教文化를 창조한다. 그 典型的인 한 樣相이 新羅의 浮土思想이다. 新羅人들은 人間世界를 淨土化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하느님의 나라를 典範으로 삼다가 불교가 수입되면서 彼岸思想과 接木시켜 새로운 宇宙觀을 형성한다. 佛敎의 宇宙觀 속에는 傳統的 하느님 사상은 언제나 民間信仰의 형태로 融合되어 合一體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淨土宗派의 思想的 背景속에는 이러한 要素들이 가장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觀音淨土思想이 으뜸으로 包容하고 있었다. 新羅의 觀音信仰은 十一面·千手觀音이 대표한다. 그 이유는 十一面·千手觀音信仰이 正統的 巫敎信仰과 血脈을 함께 할 素因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觀音系統의 信仰이 密敎의 東漸과 더불어 土着化에로 加速化된 것은 古來로 印度에 있어서도 密敎의 信仰對象은 汎神이었고, 그 目的하는 바도 鎮護國家나 攘災與樂을 통하여 現世安樂이나 祈福成就에 意味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三國遺事 所載의 觀音說話는 新羅人의 生活이며, 信仰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一次元의 世界에서 呪術的 巫敎에 의해서 信仰을 닦아 왔다. 그러나 高級宗教인 佛敎가 輸入되면서 兩敎가 目的하는 共通點은 쉽게 接合시켜 같은 宇宙觀을 形成한다. 三國統一을 完遂하면서 이 두 系統의 宗教도 二次元世界에서 三次元의 世界를 형성하면서 國家觀과 民族觀 確立에 焦點을 맞추었다.

흔히 現代를 四次元的 宗教時代라 한다. 이 四次元的 宗教思惟를 新羅人도 벌써 수다히 천착하고 있었다. 人間界에서 유추하는 相對性으로서의 彼岸, 新羅 全百姓의 佛敎人化의 動的 운동, 눈으로 보는 宗教가 아니라 心理的으로 微視的 世界를 志向하는 佛性 등은 新羅 大乘佛敎의 殊勝性이라고 할 수 있다.

新羅의 觀音淨土는 이러한 宗教理念을 具顯하는데 크게 貢獻했다. 傳來의 巫敎信仰의 對象이 하느님 나라라할 때 이것은 人間世界를 敎化하는 相對的인 것의 理想郷이다. 觀音은 確實히 理想佛이라기 보다는 現世佛이다. 그리고 그 彼岸은 西方世界다. 觀音은 阿彌陀佛의 協侍佛라는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觀音信仰은 極樂世界를 對象으로하여 人間을 濟度한다. 新羅의 觀音信仰은 보다 現世主義가 中心이다. 그러나 언제나 追究하는 理想世界는 四次元

의 空間인 西方世界인 동시에 하느님 나라인 것이다. 이 四次元의 空間은 하느님이나 부처님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신라 불교의 우월성이다.

신라 관음설화의 특색은 바로 인간구원에 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不幸을 없애고 인간을 彼岸으로 유도한다. 이 觀音菩薩信仰 가운데도 十一面, 千手觀音信仰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으뜸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정통적 하느님신앙에서 혈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 參 考 書 目

- 高亨坤, 禪의 世界 : 서울大 出版部, 1976.  
김용정, 禪과 精神分析 : 정음사, 1977.  
김무조, 韓國神話의 原型 : 正音文化社, 1988.  
김영대, 新羅佛敎研究 : 民族文化社, 1987.  
姜淸華, 淨土三部經 : 韓振出版社, 1980.  
閔熹植, 불의 精神分析 : 三省出版社, 1982.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 형실출판사, 1983.  
李丙燾, 三國遺事 : 東國文化社, 1956.  
李恩奉譯, 宗教形態論 : 형실출판사, 1979.  
李符永, 分析心理學 : 一潮閣, 1978.  
柳炳德, 韓國新興宗教 :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4.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조명기,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 新太陽社, 1962.  
黃涇江, 新羅佛敎說話研究 : 一志社, 1975.  
韓國文化史大系, 高大 民族文化社, 1982.  
田炳德, 大慈大悲 觀世音菩薩 :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1986.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傳來放